

본대로 들은대로

새마을로 變貌한

鐵道周邊 風景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김 윤 기

1月 16日 上午 10時 서울驛 發 觀光號를 탔다. 鐵道從業員中에 舊面인 親舊가 있어 人事를 더러 받았지만 이름까지는 다 기억할 수가 없다.

列車는 定時에 出發하여 大田까지 停車 없이 달렸다. 安養을 지나면서 車窓을 바라보니 山과 들에는 殘雪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 銀世界는 아니나 純潔해 보였다. 農地整理도 많이 되어 있었다.

旅客中의 한 분이 人事를 하러 왔다.

『누구이십니까?』 했더니 姜鍾泰라 하고 鐵道廳 運輸局 貨物課에 在職中이라고 대답한다.

『요새는 特別 鐵道「서비스」가 좋고 해서 收入도 올랐겠군요. 鐵道收入은 얼마나 되나요?』하니 『鐵道收入은 하루에 旅客收入이 6千萬원, 貨物收入이 約 4千萬원 쯤 되지요』라 대답한다.

『日本의 國鐵은 東京~大阪間을 60分 運行할 計劃이 있는데?』하고 물었더니 그는 韓國의 鐵道를 모두 電氣化 하려면 莫大한 投資가 들고 超高速化 하려면 路線建設도 다시 해야 한다고 對答한다.

大田을 定時에 지나 秋風嶺고개를 지나니 車窓밖에는 눈이 녹아 雪景을 볼 수가 없었다. 農村의 住宅들은 거의 지붕들이 改良되어 「스레트」나 「시멘트」 「기와」 등으로 改良되어 있었다. 마을의 길도 大部分 잘 改善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지난번에 高速道路 周邊을 돌아볼 때는 農村이 『새마을』로 變貌한 것을 보았는데 이번에도 鐵道를 따라 旅行하니 鐵道周邊도 많이 改良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마음이 흐뭇했다.

山에도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지만 山林綠化事業은 아직도 힘을 많이 더 기울여 積極 推進시켜야 겠다고 느꼈다.

『저 農家에서는 果然 무엇으로 燃料을 데고 있을까?』 燃料用 山林도 開發해야 하고 無煙炭으로 만든 煉炭도 廉價로 供給해야 하고 새로운 Energy源도 開發해야 되겠

다고 다시 한번 痛感했다.

大邱에는 定時인 下午 1時 30分에 到着했다. 점심은 觀光 싸롱에서 들었다.

이번의 旅行目的은 嶺南大學校理事長 李孝祥(現國會議員)氏가 請하여 嶺南大學校 建設像을 한번 보아달라고 해서 뜻한 것이었다.

慶山에 자리잡은 嶺南大學校에 到着한것은 下午2時였다. 李瑄根 總長을 만나고 李孝祥 理事長을 總長室에서 뵈고 人事하게 되었지만 總長은 大學同窓, 理事長은 中學(慶北高校, 前身一大邱高普) 同窓인 關係로 더욱 반가웠다.

1970年 正月 嶺南大學校의 建設初期에 筆者는 한번 여가에 와 본 일이 있었다.

『當時 大邱는 人口가 105萬名이었는데…』

嶺南大學校 用地面積이 또한 105萬坪이었다.

偶然한 符合이 아닐수 없다.

現在 大邱의 人口는 120萬이라니 嶺南大學校의 敷地가 좀 더 있어야 할게 아닌가 했더니 다른곳에 40萬坪이 더 確保돼 있다는 對答이었다.

李總長은 電子計算機가 五月中에 導入된다고 자랑했다. 우리나라 電子工業 發展과 발맞추어 電子工學徒 養成에 좋은 契機라고 우리는 모두 기뻐해 마지 않았다.

筆者는 여기서 大學當局에 個別 煖房 方式보다 集中煖房 方式을 採擇해 防火對策에 留意해보라고 建議하는 한편 그 밖의 些少한 意見도 添加했다.

構內를 한바퀴 돌고 夜間列車로 歸京하겠다고 했더니 旅毒도 풀겸 하룻밤 쉬고 가라는 懇請이 있어 韓一호텔에서 一泊했지만 惡夢에 시달리지만 했다.

다음날 역시 列車便으로 歸京, 서울驛 到着은 下午 2時 30分, 곧바로 科總 事務室에 出勤한後 歸家하여 旅毒을 풀 사이도 없이 『본대로 들은대로 느낀대로』 간단한 年頭 旅行記를 몇字 적어 보았다.